

# “내 글과 삶, 그리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오도엽 시인

글 김미영 kimmy@hani.co.kr



## 1막 그 남자의 대학생살

그는 공부엔 관심도 소질도 없었다. 대학 진학보다는 사진 찍는 것이 좋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 벼락치기를 시작했다. 86년 3월 건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억도 시험을 본 기억도 없다. 주로 공부에 반대되는 일만 했다.

그해 3월 단과대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지형숙지 훈련을 학내에서 진행한 경찰을 비난하는 집회였다. “경찰이 신성한 대학교정을 군홧발로 짓밟았다고?” 울분이 치솟았다. 경찰은 곤봉을 집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내리쳤다. 강의실까지 들어와 사과탄과 최루탄을 뿌렸다. 교수, 학생 그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아! 이런 학교를 다녀야 하나? 뭐, 이런 더러운 경우가 다 있어?” 그때 그는 직감했다. 결국 대학도 못 다닐 운명이라는 것을.

## 1막장 ‘전태일’에 매료되다

그날 최루탄에 눈물·콧물 범벅이 되어 있을 때, 3학년 선배가 그의 등을 톡톡 쳤다. “손으로 눈을 비비면 더 매워진다. 눈만 깜빡거리.” 그리고 그를 근처 커피숍에 데려갔다. “너

버스비 얼마 내고 다니니?” 그때 대학생은 요금 할인을 받았다. “너와 똑같은 나이임에도 돈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낸다. 너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알고 있지? 바로 네가 대학생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야.”

그 선배가 주고 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받아들었다. 그러면서도 ‘별 이상한 놈 다 봤네. 대학생이면 당연히 할인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우연찮게 책장을 펼쳤다. 전태일의 삶과 결단,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 그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찾았다. 책을 준 그 선배는 졸업 뒤 ‘노동자’가 되겠다고 했다. 멋있어 보였다. 그 역시 “사회적 지위를 쫓기 보다는 맘을 흘리는 노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대학교 1학년 때인 스무 살 때였다.

그 뒤 87년 6월 항쟁이 터졌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건국대 대표로서 대협(이후 서총련) 노동 분과에서 활동했다. 88년 3월 한차례 구속됐으나 출소한 뒤 89년 그는 건국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90년에는 서총련 투쟁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점거 농성과 가두투쟁 계획을 주로 했지요.”

### 1막2장 공장 판에 투신하다

90년 말, 그는 24살이었지만 21살짜리 주민등록증을 위장해 성수공단에 취업해 '꼬마'로 용접을 배웠다. 수배 중이었기에, 학교와 가까운 성수동은 적절한 운신처가 될 수 없었다. 이듬해인 91년 서울과 가장 먼, 연고가 전혀 없는 마산·창원 지역으로 무작정 내려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자"는 각기도 있었다. 3년을 잘 지냈는데,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구속영장에는 '북의 지령을 받은...일심단결조직...' 등도 보도 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행히 법원은 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1년6개월을 철창 안에서 살았다.

### 2막 그 남자의 글, 그리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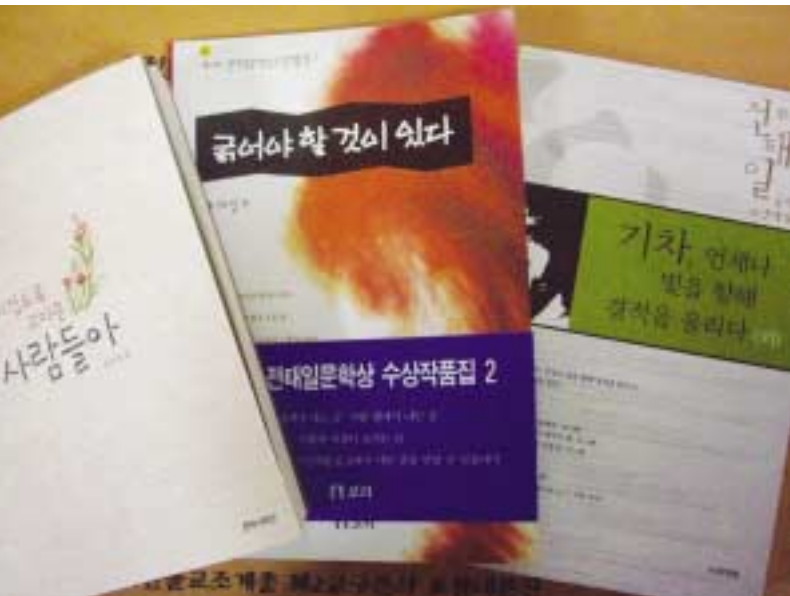
이 남자, 운이 참 좋았다. 하필 그가 있던 대전교도소에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여럿 있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기에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고 계실까.' 그는 궁금했다.

### 2막1장 대전교도소에서 장기수와 해후하다

감옥 안에서 그는 단식을 했다. 그 결과, 잘못된 복식으로 위장병을 앓아야 했다. 의무과를 들락날락 했다. "선생, 어디 가시나? 젊은 친구가 의무과에..." 안영기 선생이 물었다.

그 뒤부터 그에게 매일 녹즙이 배달됐다. 장기수 어른들이 직접 키운 케일을 갈아 그에게 보내온 것이다. 안학섭 선생은 당신이 먹던 위장약을 통째로 내오셨다. "나는 나이도 많고, 밖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네. 자네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내 마땅히 1통을 다 줘야 하나 나도 위가 아프다네. 똑같이 반을 나누세."

그는 그때 깨달았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분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부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들의 삶과 생활, 이



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의 첫 시의 첫 독자가 되어 주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기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비전향 장기수 어른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66살의 안영기 선생은 "그의 글이 세상에서 빛을 봐야 한다"며 그의 글을 갱지에 깨알 같이 써서 옮겨줬고, 온 좋게 세상에 나왔다. 바로 1997년 제7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시 <굶어야 할 것이 있다>이다.



### 2막2장 다시 노동자로, '현장소장'의 비애

출소 뒤 그는 다시 창원으로 내려왔다.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취직하는 곳마다 그 지역 대공분실에서 찾아와 회사 관계자를 협박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죽어도 '노동자'로 살고 싶었다. 작전을 바꿨다. 동료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작업장 정리,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밤에는 동료들과 술 마시면서 수시로 어울렸다. 열심히 하니, 생산부장도 감동해 대공분실 직원들의 협박에도 끝내 그를 자르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 그는 2005년까지 노동자로 일했다. 현장소장으로까지 승진했다. 급여도 많이 받았다. 아파트도 사고, 차도 샀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가슴이 '팍' 막혔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으나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처음 가졌던 노동의 꿈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경남 함안에서 농사도 지으며, 감정을 추슬러도 보았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이때 생활을 쓴 <참고마운 삶>이라는 글로 그는 2004년 제13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았다.) 결국 그는 공장을 박차고 나왔다.

### 2막3장 상경, 그리고 전태일 문학상

공장생활 15년, 그의 나이 39살. "지금껏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농민들의 생활과 삶, WTO 반대 투쟁 현장 등을 취재하는 일을 시작했다. 더불어 기류전자 문제와 맞물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는 상경했다. 그는 "문학을 한다기보다 목소리를 글로 만들고, 글이 다시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1960~1970년대 가발 공장과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의 ‘언니’ 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아줌마 열전>을 기록했다. 1999년에는 첫 시집 <그리고 여섯 해 지나 만나다>를 펴냈다. 몇 해 전부터는 민중언론 <참세상>과 월간 <작은 책>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격월간지 <삶이 보이는 창>에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기고할 예정이다.

**3막 나의 어머니 ‘이소선’, 그리고 가족, 못 다한 이야기**

2006년 11월부터니까, 1,000일 넘게 그가 해오고 있는 일이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의 일생을 기록하는 일이다. 모질게 푸른 가을, 전태일기념사업회를 찾았다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소선 여사를 만났다. 문안인사를 하면서 말미에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는 뵈. 이제

일이 년이나 살겠어. 이게 마지막이지.” 그 말에 그는 아예 창신동에 주저앉았다. 이소선 여사는 밤이 될수록 정신이 초롱초롱해지고, 힘이 나신다. 밤새 같이 담배 피우고, 간식 먹으며, 할머니(이소선 여사)의 옛이야기를 듣는 일은 재미있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어머니께 술하게 많은 자식들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챙길 것 같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로 없어요. 너무 잘 알려져서 오히려 외로운 분입니다. 어머니의 흐트러지는 눈빛, 흔들리는 목젢이 아직도 가슴에 찡하게 남아 있어요.” 그는 착잡해했다. 그와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들은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후마니타스)에서 만날 수 있다.

**3막1장 전태일 서거 40주기**

올해로 전태일 서거 40주기를 맞는다. 그와 전태일의 인연은 각별하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 평전)』이란 책에서부터 전태일문학상, 그리고 이소선 여사까지. 그는 벌써부터 이 40주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다. 서울 시

청 앞 광장에서 ‘전태일의 꿈’이란 주제로 축전을 여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난장을 벌여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 이소선 여사와 전태일의 삶을 다룬 독립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아쉬운 건 국가의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만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루하루 재단 살림을 꾸려나가기도 빠듯하다. 그는 그것이 안타깝다.

**3막2장 그리고 그의 가족, 못 다한 이야기**

그는 91년 대학교 2년 후배와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 역시 현장 노동자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부산에 있는 노동문화예술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언제나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딸은 벌써부터 스스로의 의지로 일제고사를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다. 그는 “부부가 버는 돈이 부모 노릇, 자식 노릇하면서 살기 힘든 액수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은 된다”며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자랑스럽거나, 잘해서, 후세에 남에게 알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 글 속의 ‘그’는 오도엽 시인으로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 했습니다.

\* 전태일재단 후원하기

(국민은행 : 004-01-0593-948, 우리은행 : 013-439228-01-102, 농협 : 061-02-116997 예금주 (사)전태일기념사업회)

글 김미영 | <한겨레> 기자